



미 증시, 3월 25bp 인상 기대 등으로 강세

미국 증시 리뷰

2 일(목) 미국 증시는 실업자수 하락, 노동비용 상승 등 고용지표 호조 속 달러화 강세, 금리 상승이 출현했음에도, 해당 재료들에 대한 선반영 인식, 애틀랜타 연은 총재의 3월 25bp 인상 선호 발언 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(다우 +1.1%, S&P500 +0.8%, 나스닥 +0.7%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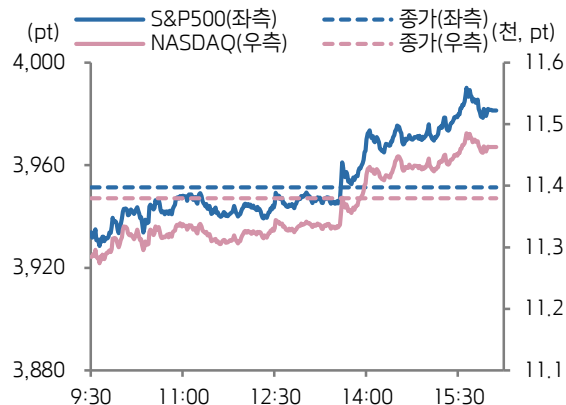
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19.0 만건으로 전주(19.2 만건) 및 예상치(19.5 만건)를 모두 하회했으며, 1 주이상 연속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건수는 165.만건으로 전주(166.5 만건) 및 예상치(166.0 만건)를 모두 하회. 4 분기 단위노동비용은 3.2%(QoQ)로 전분기(2.0%) 및 예상치(1.6%)를 모두 상회하는 등 전반적인 미국 고용시장이 탄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을 재확인. 유로존의 2월 헤드라인 소비자물가 예비치는 8.5%(YoY)로 전월(8.6%)에 비해 둔화됐으나, 예상치(8.2%)를 상회. 코어 소비자물가는 5.6%로 전월(5.3%) 및 예상치(5.3%)를 모두 상회.

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금리인상의 경제에 미치는 시차를 고려 시 연준은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3월 25bp 인상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표명. 또한 긴축으로 인한 경기 둔화가 강력할 것이라는 일부 사례가 존재한다고 설명.

ECB 가 공개한 2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 의하면, 위원회는 과도한 긴축 우려가 시기상조라고 느끼고 있음. 10월 이후 인플레이 수치가 내려왔다는 점은 환영할 만 한일이지만, 근본적인 인플레이션 전망이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. 또한 현재의 금리가 최종금리 전망치와 아직까지 많이 벌어져있는 만큼, 예상보다 금리인상을 신속하게 단행하는 프런트 로딩(front loading)의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언급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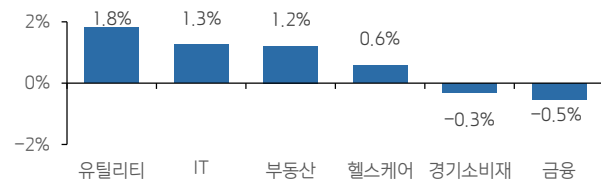
업종별로는 금융(-0.5%), 경소비재(-0.3%)를 제외한 유틸리티(+1.8%), 기술(+1.3%), 부동산(+1.2%) 등 전업종이 강세. 테슬라(-5.9%)는 뚜렷한 호재성 재료가 없었던 인베스터데이 행사 이후 일부 시장참여자들의 차익실현 및 실망 매물이 출회된 여파로 급락.

S&P500 & NASDAQ 일종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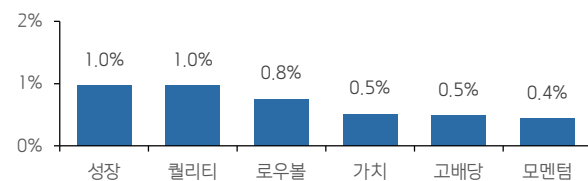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지수

주식시장			외환시장		
지수	가격	변화	지수	가격	변화
코스피	2,427.85	+0.62%	USD/KRW	1,315.11	-0.03%
코스피 200	316.26	+0.46%	달러 지수	104.98	+0.47%
코스닥	787.19	-0.56%	EUR/USD	1.06	-0.66%
코스닥 150	1,127.77	-1.34%	USD/CNH	6.92	+0.61%
S&P500	3,981.35	+0.76%	USD/JPY	136.76	+0.42%
NASDAQ	11,462.98	+0.73%	채권시장		
다우	33,003.57	+1.05%	국고채 3년	3.866	+5.6bp
VIX	19.59	-4.81%	국고채 10년	3.834	+7.4bp
러셀 2000	1,902.66	+0.22%	미국 국채 2년	4.885	+0.9bp
필라. 반도체	2,984.11	+0.96%	미국 국채 10년	4.056	+6.3bp
다우 운송	15,040.66	+1.86%	미국 국채 30년	3.994	+3.9bp
유럽, ETFs			원자재 시장		
Eurostoxx50	4,240.59	+0.59%	WTI	77.85	+0.21%
MSCI 전세계 지수	628.86	-0.03%	브렌트유	84.43	+0.14%
MSCI DM 지수	2,706.79	-0.29%	금	1842.4	-0.16%
MSCI EM 지수	984.19	+2.09%	은	20.84	-0.57%
MSCI 한국 ETF	59.36	-0.44%	구리	408	-2.11%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, 1일 종가					



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

MSCI 한국 지수 ETF 는 0.44% 하락, MSCI 신흥국 ETF 는 +0.36% 상승. 유렉스 야간선물은 0.27% 하락. NDF 달러/원 환율 1 개월물은 1309.77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6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.

주요 체크 사항

1. 원/달러 환율 1,300 원대 진입 등 수출주에 우호적인 환경
2. 중국발 화재(제조업 PMI 개선 등)가 국내 증시에 혼풍으로 작용할 가능성
3. 테슬라 인베스터데이 결과에 따른 국내 2차전지주들의 주가 변화

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전일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 선반영 인식 속 3월 FOMC 25bp 인상 언급에 안도하며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. 보스틱 애틀란타 총재는 25bp 인상을 지지하고 최종 금리 전망치를 5.0~5.25%로 제시. 이는 12월에 제시된 최종금리 수준과 동일하며 현재 시장은 최종금리 5.5%까지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월 FOMC 이후 반등 탄력이 오히려 강해질 수 있다고 판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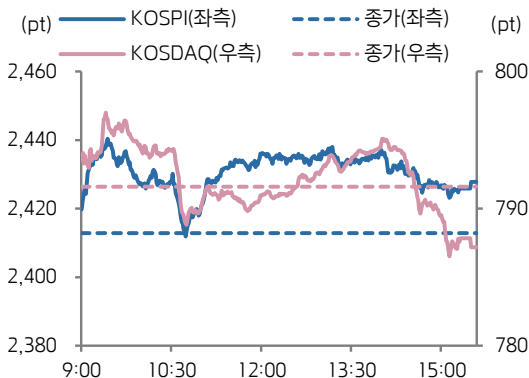
한편 경제지표는 혼재된 양상을 보임. 미 노동부에서 발표한 지난해 4분기 비농업 생산성은 QOQ 1.7%(예상 2.5%, 예비치 3.0%) 증가하며 예비치를 하회한 반면 4분기 비농업 단위 노동비용은 QOQ 3.2%(예상 1.6%, 예비치 1.1%) 증가하고 3분기 노동 비용도 종전 2.0%에서 6.9% 상승으로 큰 폭 상향 수정. 즉 고용 환경은 여전히 타이트하고 물가관련 지표들은 재차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현 시점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. 그러나 물가 하락 추세는 유효하고 고용 및 소비 둔화 등 연준의 금리인상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하반기로 갈수록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은 유효.

2일(목) 국내증시는 휴장기간동안 미증시 약세, 미 10년물 국채금리 급등 부담에도 중국 경기회복 기대감, 외국인 4거래일만에 순매수 전환한 영향에 힘입어 강세 (KOSPI +0.62%, KOSDAQ -0.56%).

중국 PMI 서프라이즈에 힘입어 화학, 철강, 해운 업종 강세 및 소비 기대감 유입되며 화장품, 의류 업종 강세 지속된 반면 일부 항공주, 레저 업종에서는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등 업종별 차별화 나타남. AI와 이차전지 관련주는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에서 머스크의 AI가 테슬라 생산에 유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 및 기대했던 저비용 전기차 등에 대한 실망감으로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는 모습 보임. 그러나 이차전지 업종 내에서도 유럽 핵심원자재법(CRMA) 수혜 예상되는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강세 보이는 등 3월에도 관련 모멘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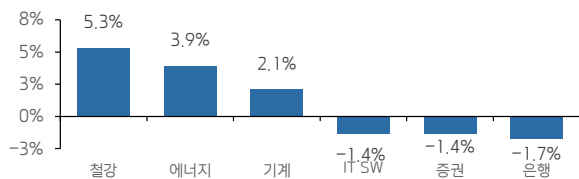
중국 경기와 동행하는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소재, 산업재 업종 매력도 상승하는 구간인 동시에 중국 소비주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. 추가적으로 최근 환율 급등 및 유가 안정은 국내 수출에 우호적인 환경이며 1월을 저점으로 수출 턴어라운드 기대감 형성되고 있으므로 디스플레이, 자동차, 운송 등 수출주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.

KOSPI & KOSDAQ 일종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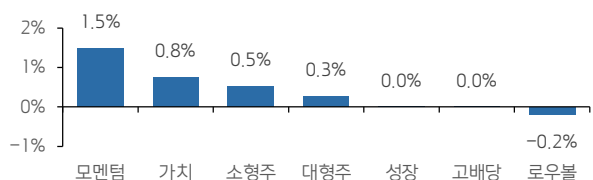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Quantwise, Fnguide, 키움증권

Compliance Notice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고지사항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